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법안 스님(왼쪽 두번째)과 토론자들이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불통이 불교 약화 원인이다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월 26일 열렸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토론자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이 교구제 개선을 통한 지역불교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종단 교구제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구제는 1911년 일본이 한국 불교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중앙종무기관 없이 도입한 31본산제에서 유래한다. 광복 이후 한국 불교계는 31본산제를 폐지했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도별 교구제를 폐지하고 다시 광복 전 본사제를 도입했다. 일본이 한국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교구제는 전법 실현을 위한 교구의 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법안 스님은 "24교구본사 중 교구 대부분이 수행과 포교 등 전법 실현을 관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에 대한 종책을 생산하는 단위가 없다. 현행 교구본사는 수말사보다 대찰(大刹)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관장하는 교구로서의 본래 기능은 뒷전이고 사찰의 행정업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스님은 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구 종회의 현실과 문중 중심의 인사정책이 종무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교구제의 이런 현실이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를 낳았고, 결국 불교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스님의 분석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구법 제정 교구 인사제도 개선 조계종 지역연합회 활성화 교구 신설 및 분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구법'은 현행 교구에 관련된 지방종정법을 비롯한 교구 종회법, 본사주지회의 법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성격이다. '교구법'을 통해 교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스님은 또 '(가칭)교구획정위원회'를 설립해 불명확한 교구의 관할권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7직 중심의 행정업무도 인권, 환경, 빈민 등 사회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교 전략 및 조직 체계 마련은 종교 본연의 사명으로 직결된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구본사주지 및 말사주지 그리고 교구본사 7직 소임자를 포함한 각 소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시스템을 주문했다.

법안 스님, "교구제 이젠 한계"
교구법 제정 및 인사제도 개선
교구본사 기능의 인식전환 시급

또한 1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여러 교구본사가 겹칠 경우에는 포교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동관리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대다수 교구본사가 국가행정자치구역과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관리사무소를 개설해 지역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행정기관 및 NGO 등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포교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도심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시·도급 지역의 교구 신설, 교구 분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 도시에는 반드시 중대형 거점 사찰을 육성해 도심 포교 공동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구 분구제는 교구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제기됐다. 2008년 종단 통계에 따르면 소속 사찰이 100개가 넘는 교구본사는 직할교구 동화사 해인사 범어사 등 7곳에 이른다.

스님은 "종무행정력이 취약한 교구본사가 100개 이상의 말사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0개 사찰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교구를 분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중앙종단, 교구, 사찰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이 교구제도를 일순간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교구의 신설과 개편을 주장한 반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중점을 뒀다.

영담 스님은 "교구가 행정구역을 고려해 재획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구 방안은 더 고민해야 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교구본사를 분구해서 종무행정력의 개선을 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입장료 수입이 교구본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분구를 할 경우 분구된 교구본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담 스님은 이런 이유로 거점 사찰 지정과 조계종지역연합회 설립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도심 포교는 경험이 필요하다. 도심 내 거점 사찰을 지정하고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성공 사례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교구 신설방안도 자연스럽게 도출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사찰 위주의 불사가 아니라 교구가 함께 하는 불사가 될 때 지역 내 역량이 커진다. 지역문화와 불교를 일치시켜 문화 속에서 모든 힘이 모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기획실장은 미약한 교구 개편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거점 사찰 지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엽 실장은 "지역에는 거점사찰이 신도들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속출하는 현상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사찰 지정보다는 도심지에 불교회관을 건립하거나 군 단위 이상 도시에 가톨릭 회관이나 YMCA와 같이 대사회활동을 겸하는 불교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엽 실장은 또 지역불교활성화 논의에서 재가자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불교총람, 특색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교구에 재가자를 위한 불교대학 등이 개설돼 있지만 운영이 주먹구구인 경우가 많고, 군(郡) 단위 이상 지역마다 교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교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구별 불교총람이 있어야 교구의 미래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승·재가가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행단체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 "거점사찰 육성 타당"
이준엽 실장 "거점사찰은 SSM"
교구본사 개편 및 신설 비현실적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토론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②**

유일한 조선시대 석탑

원각사지 십층석탑
(圓覺寺址 十層石塔)
국보 제2호
조선시대/ 서울 탑골공원 소재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일하게 남은 국보 제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현재 조류 배설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각이 씌워진 채로 탑골공원(塔骨公園) 안에 모셔져 있다. 높이는 12m.

이 탑은 대개의 탑이 화강암으로 이뤄진 것에 비해 드물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탑 구석구석에 용, 사자, 연꽃무늬 등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탑을 받쳐주는 기단은 3단으로 돼 있고, 위에서 보면 아(亞) 자 모양이다. 탑신부는 10층으로 이뤄져 있고,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모양이다.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룬다. 각 층마다 지붕, 공포, 기둥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탑이 봉안된 탑골공원은 탑공원, 탑동공원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파고다공원이라 했으나 1992년부터 이곳의 옛 지명을 빌어 탑골 공원이라 개칭했다. 이곳은 특히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민족해방운동의 발상지로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특별기고

교구종회 활성화에 불교 미래 좌우된다

총무원장 선거 역할 탈피해야
지역불교의 선봉장 역할 막중

최근 20년 동안 사회발전은 과거 수백년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이룩했다. 변화라기보다는 충격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물론 한국불교도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1990년 개혁의 물결 속에 사찰의 재정공개와 복지 불교가 봇물처럼 흐르고 불교발전의 표상인 신도증가 요인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싶다.

각 교구 본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을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하고 부처님의 대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중앙에서만 행해지는 대법회를 과감하게 지역으로 옮기면서 행하고, 지역교구장의 역할을 중앙에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중앙종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종회가 활성화 되면서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지방종회는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역할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교구종회에서 교구본사의 모든 행정을 분기별로 감독해야 한다. 동시에 본사주지의 역할을 강화해주면서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교구본사주지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중앙종회와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유일한 행정감독이다. 그러다보니 4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고 문중의 이익에 따라서 주지가 선출되는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불교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상황이다. 누가 우선이라는 것도 없이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다. 교구종회가 활성화 되어서 각 교구본사가 지역불교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포교, 복지, 교육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앞으로 불교미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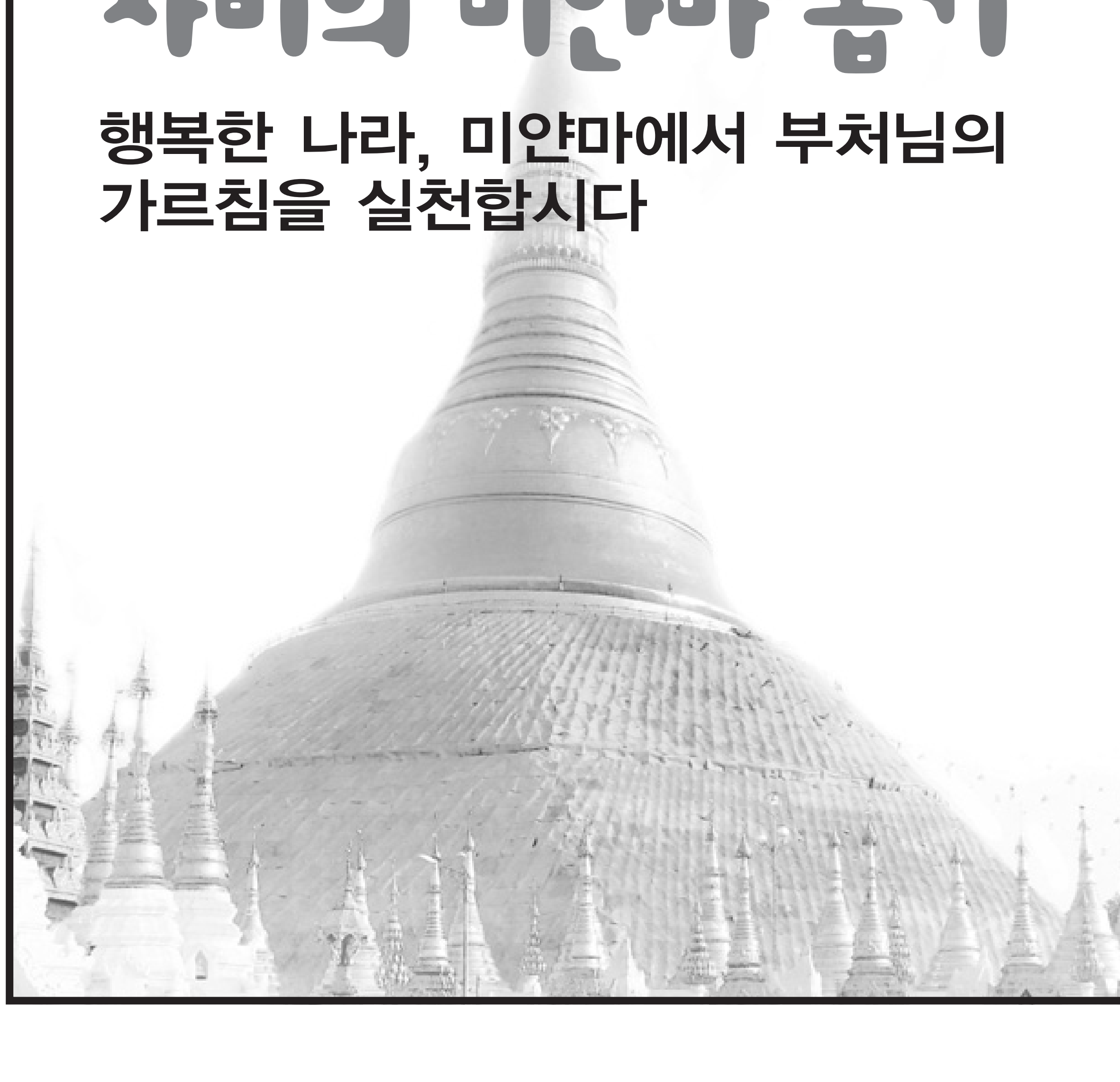
산업화를 넘어서 이제 다시 인간성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물질문명과 경쟁에 시달린 사람들이 탈출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 탈출구는 불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심 스님(중앙종회의원 · 월봉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쀼 출가의식 지원
  신쀼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쀼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